

동북아 5개국 공정서의 식물성 한약재 기원종 비교 : 同名異屬種을 중심으로

최고야[#], 강영민, 문병철, 김호경^{*}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그룹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Origins of Crude Drugs in the Northeast Asian Pharmacopoeias : Centered on Same Name of Materials but Different Genus

Goya Choi[#], Youngmin Kang, Byeongcheol Moon, Hokyong Kim^{*}

Herbal Medicine Resources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Herbal medicines were used a lot in the Northeast Asia, traditionally. However, the pharmacopoeia standards in South Korea, China, Japan, Taiwan, and North Korea including many other Asia are different and cause confusion. If the origins are not belonging to same genus, it should be careful to distinguish. In this study, herbal medicines in the pharmacopoeia were analyzed for different genus of origins in order to identify the disruptive items for each country.

Methods : The scientific names of herbal medicines (plant based) was analyzed origins from Pharmacopoeias of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Taiwan,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origins specified differently were examined. Especially, the items which have different genus were analyzed in detail and confirmed for correct scientific name.

Results : The analyzed herbal medicines in Pharmacopoeia were all 753 items. 320 items were in only one country's Pharmacopoeia, 237 items were in more than two countries' Pharmacopoeia, but their origins were same on each other. The items which have different genus were 35 items.

Conclusions : In general, species belonging to the same genus have similar ecological, morphological, and pharmacological activity. However, species with different genus may have different medicinal ingredients and pharmacological activity. Thus, the items which have same name but different genus are required to analyze for comparison of pharmacological activity. Also, other species belonging to the different genus should be used for different items.

Key words : Pharmacopoeia, Crude drug, Herbal material, Scientific name

서론

동북아 지역은 한자문화권으로서 의료수요의 일부를 한의학으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약재의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며,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약전 등 공정서에 한약재를 수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약전¹⁾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²⁾,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약전^{3,4)}, 일본의 일본약국방^{5,6)}과 일

본약국방외생약규격⁷⁾, 대만의 대만전통약전⁸⁾, 그리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⁹⁾ 등이 한약재가 수재된 각국의 공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서의 규격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기원종이 달리 설정된 경우는 유통 및 사용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각국의 수교와 무역이 시작되면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 공정서의 기원 규정에 대한 비교연구도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로는 한국·중국·일본 공정서 수제품의 기원에 대한 분류

*교신저자 : 김호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그룹
· Tel : 042-868-9502 · Fax : 042-868-9541 · E-mail : hkkim@kiom.re.kr
#제1저자 : 최고야,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그룹
· Tel : 042-868-9348 · E-mail : serparas@kiom.re.kr
· 접수 : 2013년 8월 15일 · 수정 : 2013년 8월 27일 · 채택 : 2013년 9월 6일

학적 검토¹⁰⁾, 남·북한 한약재의 기원과 한약명에 대한 연구¹¹⁾, 한약전 편찬을 위한 한국·중국·북한·대만·일본 공정서의 기원 탐색¹²⁾, 남·북한 약전의 체제 전반에 대한 비교¹³⁾, 한국·중국·일본·베트남·북한·대만 약전의 烏藥 기준 비교¹⁴⁾, 한국·중국·일본·베트남·북한·대만 약전의 *Curcuma*속 한약재 기준 비교¹⁵⁾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2011년 이후 최신 개정된 공정서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특히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2012년 연말에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최신 개정판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 현행 공정서의 기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및 북한의 최신 공정서를 비교하여, 식물성 한약재 중에서 약명은 같으나 그 기원종이 다르게 설정된 품목, 그 중에서도 기원종의 屬(genus)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공정서는 동북아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의 현행 공정서로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2012. 이하 KP)¹⁾,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4개정(2012. 이하 KHP)²⁾, 중화인민공화국약전 2010년판(2010) 및 제1증보(2012. 이하 CP)^{3,4)}, 일본약국방 제16개정(2011) 및 제1추보(2012. 이하 JP)^{5,6)}, 일본약국방외생약규격 2012(이하 NJP)⁷⁾, 대만전통약전(2005. 이하 THP)⁸⁾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 제7판(2011. 이하 DP)⁹⁾이다.

검토 범위는 KP 의약품각조 제2부 중 복합제제·가루생약·엑스류를 제외한 '생약' 전부, KHP 의약품각조 제1부 중 포제품을 제외한 전부, CP 제1부의 포제품을 제외한 '약재와 음편' 전부, JP 의약품각조 중 복합제제·가루생약·엑스류를 제외한 '생약 등' 전부, NJP의 가루생약을 제외한 전품목, THP 의약품각조 전품목, DP 제1부 중 복합제제를 제외한 고려약이며, 각 공정서에서 식물성 한약재의 기원 중 학명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KP의 경우 '생약'으로 분류되지 않고 '첨가제'로 수재되어 있는 품목이라도 다른 공정서에서 한약재로 실려있는 것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학명 표기의 검토 및 정명-이명 관계 확인을 위한 문헌근거로는 The Plant List(<http://www.theplantlist.org>)¹⁶⁾, Flora of China(<http://efloras.org>)¹⁷⁾, IPNI 명명자 검색(<http://www.ipni.org/ipni/authorsearchpage.do>)¹⁸⁾ 등 저명한 식물학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2. 방법

각 공정서 중 식물성 한약재의 기원 학명만을 비교하여 동일기원과 이종기원 및 논란상태로 분류하였다. 동일기원이라 함은 약명이 같고 종명(속명 및 종소명)과 명명자의 표기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단순한 철자 오류는 용인), 종명이 동일하고 명명자를 약칭으로 표기한 경우, 종명이 동일하고 명명

자의 일부가 누락/추가된 경우, 표기가 상이하지만 이명 관계로 널리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였다. 이종기원이라 함은 약명이 같으나 기원종의 분류군이 명백히 다른 경우로 정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분류군이 같은 속(genus)에 속하는 경우와 각기 다른 속에 속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논란상태라 함은 각 분류군이 동종인지 이종인지 문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우로 정하였다.

단, 약명의 경우 각 공정서에서 동명으로 지정한 명칭 및 한의학적으로 용인되는 이명은 같은 약명으로 취급하였다. 특히 KP에서 외래어로 표기된 약재와 DP에서 약명이 순 한글로 표기된 약재는 다른 공정서에 그에 해당하는 한자 약명이 있는 경우 그 한자 약명 아래에서 함께 정리하였다(예: 스코폴리아근 → 莨菪根). 또한 한 공정서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원종이 하나의 약명으로 수재되었는데 다른 공정서에서는 각기 다른 약명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는 포괄적인 하나의 약명 아래에서 함께 정리하였다(예: 鐵皮石斛 → 石斛).

각 공정서의 식물성 한약재 중에서 동일기원인 것은 제외하고 이종기원 중 동속종인 경우, 이종기원 중 동속종이 아닌 경우, 논란상태인 경우를 각각 정리하였으며, 이종기원 품목 중 동속종이 아닌 품목만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 학명의 정이명 여부 및 표기상 정오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명명자는 식물명명규약¹⁹⁾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IPNI의 명명자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약칭으로 하였다.

결과

5개국 공정서에 수재된 식물성 한약재의 총수는 753품목이었으며, 이 중 320품목은 각각 단 1개국의 공정서에만 수재된 품목이며, 237품목은 2개국 이상의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으나 그 기원종이 동일하였다. 나머지 196품목은 공정서별로 기원종이 상이하였는데, 동속종인 경우가 136품목, 동속종이 아닌 경우가 35품목, 분류상 논란이 있는 경우가 26품목이었다.

1개국 공정서에만 수재된 품목은 Table 1과 같으며, 총 320품목 중 CP가 153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DP 105품목, KHP 49품목, NJP 7품목, JP 5품목, THP 1품목이었다. 이종기원 품목 중 동속종으로 기원종이 규정된 136품목은 Table 2와 같으며, 동일종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류학적 논란이 있는 26품목은 Table 3, 이종기원 품목 중 동속종이 아닌 35품목은 Table 4와 같다. 지면 관계상 각 기원종별 학명은 고찰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Table 1. List of plant based herbal materials that registered in just one pharmacopoeia.

Pharmacopoeia	Name
CP	杠板歸, 鷄骨草, 高山辣根菜, 苦地丁, 苦玄參, 功勞木, 瓜蒌, 瓜蒌皮, 瓜子金, 寬葉金絲桃, 廣金錢草, 廣東紫珠, 廣藜, 枸骨葉, 九里香, 救必應, 菊苣, 筋骨草, 金果櫻, 金蕎麥, 錦燈籠, 金沸草, 金龍膽草, 金鐵鎖, 羅布麻葉, 羅漢果, 南五味子, 藍布正, 南鶴虱, 斷血流, 大葉紫珠, 大血藤, 刀豆, 桃枝, 獨一味, 冬凌草, 燈臺細辛, 滿山紅, 梅花, 綿草解, 明黨參, 毛訶子, 母丁香, 牡荊葉, 木棉花, 木芙蓉葉, 木蝴蝶, 貓爪草, 翻白草, 茯苓皮, 北劉寄奴, 粉葛, 粉草解, 飛揚草, 四季青, 沙棘, 娑羅子, 山銀花, 山香園葉, 三鞭針, 三白草, 西瓜霜, 西青果, 稊莢, 石吊蘭, 小駝骨, 小葉蓮, 小通草, 垂盆草, 首烏藤, 水紅花子, 薯蕷, 兒茶, 鴉膽子, 鵝不食草, 亞乎奴, 岩白菜, 鴨跖草, 艾片, 野馬追, 野木瓜, 洋金花, 兩頭尖, 兩面針, 餘甘子, 蓮鬚, 蓮子心, 矮地茶, 蓼大青葉, 蘭羊花, 龍脷葉, 雲芝, 月季花, 油松節, 葵仁, 伊貝母, 翼首草, 人參葉, 一枝黃花, 紫萁貫衆, 紫檀香, 紫珠葉, 藏木香, 積雪草, 滇雞血藤, 腫節風, 朱砂根, 珠子參, 重樓,

	地錦草, 蜘蛛香, 地楓皮, 天葵子, 千年健, 千里光, 川木香, 川射干, 天山雪蓮, 天仙藤, 天仙子, 穿心蓮, 甜瓜子, 青果, 青葉膽, 草烏葉, 臭靈丹草, 太子參, 土貝母, 土荆皮, 通關藤, 片薑黃, 布渣葉, 暴馬子皮, 楓香脂, 夏天無, 橘藤子, 合歡花, 海風藤, 香加皮, 香櫞, 湖北貝母, 紅景天, 紅芪, 紅大戟, 紅豆蔻, 洪連, 紅花龍膽, 華山參, 黃藤, 黃山藥, 黃蜀葵花, 厚朴花, 黑種草子 (153 items)
DP	감매나무열매, 감나무열, 고수열매, 골병풍뿌리줄기, 관동열, 괴상아뿌리, 금전화, 깨묵, 꽃고비, 파리, 나래박쥐나무, 냉이, 냉초뿌리, 넓은잎정향나무열, 노가지열매, 노루풀뿌리, 농마, 누리장나무열, 느리나무속줄기, 다름겉질, 다름속줄기, 닥풀뿌리, 달맞이꽃씨, 달맞이꽃씨기름, 대추열, 도토리, 도토리질, 독말풀씨, 돌꽃뿌리, 돌부채, 등침줄기, 땅두릅뿌리겉질, 평능향정유, 마가목열매, 매자나무가지, 목화뿌리겉질, 물속, 물오리나무열매, 물향칠싸는, 미나리, 바다가속, 밤송이질, 방울풀뿌리, 백리향정유, 백산자, 버들잎, 베라비아초, 보리수열, 복숭아꽃, 복쪽, 붓나 무버섯, 분지, 뽕뿌리싸는, 사리풀열, 사시나무겉질, 산수유씨, 산죽, 살구나무진, 살구씨기름, 삼정향열, 삼칠뿌리, 상사화비늘줄기, 생강속정유, 생지나물뿌리, 석결명씨, 소회향정유, 송라, 쇠뜨기, 수박겉질, 수선화비늘줄기, 숫잔대, 쉬땅나무가지열, 싸리버들줄, 쌀기름, 아마씨기름, 아카시아꽃, 아편, 아큰덩이뿌리, 오미자씨, 옥쌀기름, 월굴열, 은방울꽃, 자귀나무열, 잠두싸리, 장미열매, 절구대열매, 짓풀뿌리, 주목겉질, 죽사초열, 지모열, 참나물, 참대열, 참오동열, 철쭉꽃, 철쭉열, 침줄기, 감파풀, 큰만병초열, 털독말풀씨, 털여귀, 파란여로, 해바라기기름, 향갈풀정유, 향나무속줄기, 호박씨 (105 items)
KHP	景天, 桂心, 骨騰草根, 九折草, 糯稻根, 大葉瓜, 大風子, 藤黃, 楠實子, 木槿皮, 木天蓼, 蕪荑, 미르톨, 미사인, 尾參, 百草霜, 黃豆, 伏神, 草薢, 빌베리열매건조가루, 石榴, 石松子, 石菖蒲, 槲朮風, 神麩, 양파, 列當, 오르소시폰가루, 蕪荑子, 劉寄奴, 印度蛇木, 荇子, 苧麻根, 接骨木, 精製附子, 種大黃, 竹瀝, 枳椇子, 蜀葵花, 葱白, 漆皮, 하르과고파름근, 海帶, 胡桐屎, 虎耳草, 紅花子, 樺皮, 黃梅木, 黑砂糖 (49 items)
NJP	橘皮, 南天實, 菱莖, センナヅツ, 楊梅皮, 延命草, 和藥本 (7 items)
JP	甘茶, 檳榔, アカメガシマ, ウラウルシ, コロンボ (5 items)
THP	石南藤 (1 item)

Table 2. List of the plant based herbal materials that have different origins in each pharmacopoeia but belong to same genus

葛根[KP CP JP THP DP], 甘菊(野菊)[KHP CP DP], 甘遂[KHP CP THP DP], 甘草[KP CP JP THP DP], 乾栗[KHP DP], 牽牛子[KP CP JP DP], 決明子[KP CP JP DP], 薑本[KHP CP NJP DP], 苦椒(辣椒, 蕃椒)[KP CP JP DP], 穀精草[KHP CP THP], 栝樓根(天花粉)[KP CP JP THP DP], 栝樓仁(瓜蒌子)[KP CP NJP THP DP], 枸杞子[KP CP JP THP DP], 菊花[KHP CP JP THP], 瞿麥[KHP CP DP], 拳參[KHP CP DP], 金銀花[KP CP THP DP], 吉草根[KP JP DP], 狼毒[KHP CP DP], 苕荇根[KP JP DP], 蘆薈[KHP CP JP DP], 綠豆[KHP DP], 鹿蹄草(鹿銜草)[KHP CP], 當歸·日當歸[KP CP JP THP DP], 當藥[KP CP JP], 大薊[KHP CP THP DP], 大棗[KP CP JP THP DP], 大腹皮[KP CP NJP THP], 大黃[KP CP JP THP DP], 桃仁[KP CP JP THP DP], 冬瓜子(冬瓜仁)[KHP JP THP DP], 燈心草(燈心)[KP CP NJP DP], 디기탈리스[KHP DP], 馬兜鈴[KP DP], 蔓荊子[KP CP NJP THP DP], 木瓜[KHP CP NJP THP DP], 木通[KP CP JP THP DP], 薄荷[KP CP JP THP DP], 박하유(박하정유)[KP(정)] JP DP], 白豆蔻(豆蔻)[KP CP THP DP], 白頭翁[KHP CP THP DP], 白薇[KHP CP THP DP], 百部根[KHP CP THP DP], 白芷[KP CP JP THP DP], 白朮[KP CP JP THP DP], 百合[KHP CP JP THP DP], 覆盆子[KP CP THP DP], 附子[KP CP JP DP], 櫃子[KHP CP DP], 砂仁(縮砂)[KP CP JP THP DP], 麝香草(百里香)[KHP DP], 山楂(山楂子)[KP CP JP THP DP], 山楂葉[KP CP DP], 山藥[KP CP JP THP DP], 酸棗仁[KP CP JP THP DP], 山椒(花椒)[KP CP JP THP DP], 商陸[KHP CP DP], 桑白皮[KP CP JP THP DP], 桑椹子(桑椹)[KHP CP DP], 桑葉[KHP CP DP], 桑枝[KHP CP THP DP], 石斛·鐵皮石斛[KHP CP THP], 石韋[KHP CP THP DP], 旋覆花[KHP CP THP DP], 細辛[KP CP JP THP DP], 小薊[KHP CP THP DP], 松花粉[KHP CP DP], 테레빈유[KP(정)] DP], 升麻[KP CP JP DP], 柴胡[KP CP JP THP DP], 辛荑[KHP CP JP THP], 阿魏[KHP CP], 莪朮[KP CP JP THP DP], 鬱金[KP CP JP THP DP], 安息香[KP CP JP], 艾葉[KHP CP JP THP DP], 櫻皮[KHP JP], 羊蹄根[KHP DP], 藜蘆[KHP DP], 女貞實(女貞子)[KHP CP THP DP], 連翹[KP CP JP THP DP], 連錢草[KHP CP DP], 蒼實[KHP JP DP], 靈芝[KHP CP DP], 預知子[KHP CP], 五加皮[KP CP DP], 五味子[KP CP JP THP DP], 玉竹[KHP CP DP], 瓦松[KHP CP], 龍膽[KP CP JP DP], 龍牙草(仙鶴草)[KHP CP THP DP], 遠志[KP CP JP THP DP], 威靈仙[KHP CP JP DP], 肉蓯蓉[KHP CP DP], 淫羊藿·巫山淫羊藿[KP CP
--

JP THP], 益母草[KP CP JP THP DP], 芫荇子[KHP CP DP], 茵陳蒿(茵陳)[KHP CP JP THP DP], 紫花地丁[KHP CP], 芍藥·白芍·赤芍[KP CP JP THP DP], 楮實子[KHP CP], 赤小豆[KHP CP THP], 薺尾[KHP DP], 皂角刺[KP CP THP DP], 皂莢·猪牙皂·大皂角[KHP CP THP DP], 鈞藤(鈞藤·鈞藤鈎)[KHP CP JP THP DP], 棕櫚皮(棕櫚)[KHP CP], 地骨皮[KP CP JP THP DP], 地榆[KHP CP THP DP], 秦皮[KHP CP DP], 車前子[KP CP JP DP], 車前草[KP JP DP], 川芎(芎藭)[KP CP JP THP DP], 天南星[KP CP NJP THP DP], 穿山龍[KP DP], 茜草根(茜草)[KHP CP THP DP], 川貝母[KP CP], 青蒿[KHP DP THP DP], 草烏[KHP CP DP], 沈香[KHP CP NJP DP], 澤瀉[KP CP JP THP DP], 土茯苓(山歸來)[KHP CP JP THP DP], 菟絲子[KHP CP THP DP], 敗醬[KHP DP], 蒲公英[KHP CP DP], 蒲黃[KHP CP DP], 夏枯草[KP CP JP THP DP], 杏仁[KP CP JP THP DP], 玄參[KP CP NJP THP DP], 玄胡索(延胡索)[KP CP JP THP DP], 血竭[KHP CP], 胡黃蓮[KHP CP], 黃柏(黃蘗)·關黃柏[KP CP JP THP DP], 黃精[KP CP JP THP DP], 薺薇(薺草)[KHP CP DP] (136 items)
--

Table 3. List of the plant based herbal materials that have different origins in each pharmacopoeia but belong to different genus.

羌活[KP CP JP THP DP], 芥子[KHP CP THP DP], 穀芽[KHP CP THP], 昆布[KHP CP THP DP], 藿香[KHP JP THP DP], 膠飴[KHP JP], 漏蘆·禹州漏蘆[KHP CP DP], 大豆黃卷[KHP CP DP], 大青葉·蓼大青葉[KHP CP THP DP], 獨活·和羌活·唐獨活[KP CP JP NJP THP DP], 麥門冬·麥冬·山麥冬[KP CP JP THP DP], 防己[KP CP JP], 白附子[KHP CP DP], 淨澤瀉[KHP CP DP], 沙參(南沙參)[KHP CP NJP THP DP], 蛇床子[KHP CP JP DP], 山慈姑[KHP CP DP], 三棱[KP CP THP DP], 桑寄生[KHP CP THP], 王不留行[KHP CP THP DP], 乳香[KHP CP DP], 銀柴胡[KHP CP DP], 紫根(紫草)[KP CP JP DP], 前胡·紫花前胡[KHP CP JP THP DP], 葶藶子[KHP CP DP], 竹茹[KHP CP NJP THP DP], 秦艽[KHP CP NJP DP], 天竺黃[KHP CP THP DP], 青黛[KHP CP DP], 華澄茄[KHP CP], 寒天[KP JP DP], 香薷[KHP CP DP], 玄草(老鶴草)[KP CP JP DP], 黃連[KP CP JP THP DP], 茴香油(茴香精油)[KP(exipient) JP DP] (35 items)
--

Table 4. List of the plant based herbal materials that have been under argument taxonomically.

甘松香(甘松)[KHP CP], 橘核[KHP CP], 絡石藤[KHP CP], 黨參(蔓參)[KP CP DP], 橙皮[KHP JP], 曼陀羅葉[KHP DP], 麥芽[KHP CP JP DP], 茅根(白茅根)[KP CP JP DP], 吳藥[KP CP THP], 白屈菜[KHP CP DP], 石菖蒲[KHP CP NJP THP DP], 吳茱萸[KP CP JP THP DP], 牛膝[KP CP JP DP], 郁李仁[KHP CP DP], 肉桂[KP CP JP THP DP], 紫蘇葉[KP JP DP], 紫蘇子[KHP CP NJP THP DP], 枳殼[KHP CP THP DP], 枳實[KP CP JP THP DP], 地黃·生地黃[KP KHP CP JP THP DP], 陳皮[KP CP JP THP DP], 青皮[KP CP NJP THP DP], 蒼朮[KP CP JP DP], 川楝子[KHP CP NJP THP], 黃芪[KP CP JP THP DP], 厚朴[KP CP JP THP DP] (26 items)

고찰

일반적으로 같은 속이 속하는 식물은 그 생태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약리적 활용 측면에서도 대동소이한 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록 기원종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동속종인 경우는 사용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속이라 하더라도 그 생태 및 성분 요소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성분 패턴 비교 등 이화학적 동등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식물성 한약재 중 이종기원 품목 중 동속종이 아닌 품목이 35건이었는데, 이는 전체 식물성 한약재 748품목에 비하면 약 4.7%라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속이 아닌 종은 그 생태/형태가 현

격하게 다르고 그 성분 구성도 같을 수 없으므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속종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도에 사용해왔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는 고려~조선시대에 중국산 수입약재인 唐材의 희귀성을 극복하기 위해 鄉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자원부국의 약용자원 무기화 전략의 대두라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약재 국산화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기초작업으로서, 각국 공정서에서 동일한 약명의 기원종으로 분류계통이 다른 종을 규정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羌活의 경우, CP, JP, THP에서는 *Notopterygium incisum* Ting과 *N. forbesii* Boissier를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DP에서는 *Ostericum koreanum* Maxim.만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KP에서는 이 3종을 모두 포함하여, 두 방향을 절충하고 있다. 한편 *N. incisum*의 정명은 *N. incisum* C.C.Ting ex H.T.Chang이고, *N. forbesii*의 정명은 *N. franchetii* H.Boissieu로서¹⁷⁾, 두 학명 모두 공정서의 명명자 표기가 잘못되었고 후자는 분류군이 재정립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O. koreanum*의 정명은 *O. grosseserratum* (Maxim.) Kitag.이다¹⁷⁾.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 유통되는 羌活이 *O. grosseserratum*이 아닌 *Angelica genuflexa* Nutt.라는 보고도 있으므로²⁰⁾, 이에 대한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芥子の 경우, KHP에서는 *Brassica juncea* Czern. et Cosson와 그 변종을, CP에서는 *B. juncea*와 *Sinapis alba* L.을, THP에서는 *S. alba* 한 종만을, DP에서는 *B. juncea*와 *B. cernua* Forb. et Hemsl.를 각각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B. juncea*와 *B. cernua*의 정명은 *B. juncea* (L.) Czern.¹⁷⁾로서, 두 종(겨자와 갓)은 재배품종의 차이일 뿐 분류학적으로는 단일종이다²¹⁾. *B. juncea*의 변종 역시 분류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재배변종에 해당한다. CP에서는 *S. alba*를 白芥子, *B. juncea*를 黃芥子라고 별칭하는데, 본초학적으로 芥子の 목적 효능에 더 부합하는 것은 白芥子로 알려져 있다.

穀芽의 경우, KHP와 THP에서는 *Oryza sativa* L.를, CP에서는 *Setaria italica* (L.) Beauv.를 각각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이는 쌀과 좁쌀의 차이로서, 국내 기준에 따르면 중국산 穀芽는 위품이 된다. 다만 CP에서는 KHP와 THP의 穀芽에 해당하는 약재로 稻芽를 수재하고 있다. 한편, *S. italica*의 정확한 명명자 표기는 '(L.) P.Beauv.'이다¹⁸⁾.

昆布의 경우, KHP와 DP에서는 *Laminaria japonica* Areschoug만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나, CP와 THP에서는 여기에 *Ecklonia kurome* Okam.를 추가하였다. *Laminaria*는 다시마과에, *Ecklonia*는 미역과에 속하므로, 이 두 종의 계통적 관계는 비교적 거리가 멀다. 또한 *L. japonica*의 중국명은 '海帶', *E. kurome*의 중국명은 '昆布'로서, 한약재 昆布에 더 부합하는 기원종은 *E. kurome*일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효능검증을 통해 추가연구해야 할 부분이다²²⁾. 한편, *L. japonica*의 명명자는 John Erhard Areschoug으로서, 정확한 약칭 표기는 'Aresch.'이다¹⁸⁾. KHP에서는 Areschoug를 Areschoung으로 잘못 기재하여 철자상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E. kurome*의 명명자는 Kintarô Okamura로서, 정확한 약칭 표기는 'Okamura'이다¹⁸⁾.

藿香의 경우, KHP와 THP에서는 *Agastache rugosa* (Fischer et Meyer) O.Kuntze를, DP에서는 여기에 *A. formosanum* Hayata.를 더해서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JP에서는 *Pogostemon cablin* Benthام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JP에서 藿香으로 수재하고 있는 *P. cablin*은 KP, CP 및 THP에서는 廣藿香으로 수재하고 있다. 藿香과 廣藿香의 정유성분 비교 연구²⁴⁾에 따르면 *P. cablin*과 *A. rugosa*의 성분 구성은 전혀 다른데, 藿香의 기원식물에 대한 문헌적 연구²⁵⁾에 따르면 고문헌에 등장하는 藿香의 기원종은 *P. cablin*이므로, JP의 기원종 규정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A. rugosa*의 명명자 O.Kuntze는 원래 Carl Ernst Otto Kuntze로서, 정확한 약칭 표기는 'Kuntze'이며¹⁸⁾, 전체 명명자의 올바른 약칭 표기는 '(Fisch. & C.A.Mey.) Kuntze'이다¹⁶⁾. 또한 DP의 *A. formosanum*은 올바른 표기가 *A. formosana* (Hayata) Hayata ex Makino & Nemoto로서, 이는 *A. rugosa*와 동일종이다¹⁶⁾.

膠飴의 경우, KHP에서는 *Oryza sativa* L.와 *O. sativa* var. *glutinosa* Matsumura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JP에서는 *O. sativa*, *Zea mays* L., *Manihot esculenta* Crantz, *Solanum tuberosum* L. 및 *Ipomoea batatas* Poir.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膠飴는 전분을 당화시킨 것으로서 주성분이 맥아당이지만, 맥아당의 함량은 KHP 규정상 50.0~62.0%이고 나머지는 원재료에 따라 다양한 성분 조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원종별 약리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O. sativa* var. *glutinosa*는 *O. sativa*의 재배품종으로서, *O. sativa* L. 'Glutinosa'가 정확한 표기가 된다. *I. batatas*의 정명은 *I. batatas* (L.) Poir.이지만^{16,23)}, 문헌에 따라서 *I. batatas* (L.) Lam.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¹⁷⁾.

漏蘆의 경우, KHP에서는 *Rhaponticum uniflorum* (L.) DC., *Echinops setifer* L. 및 *E. latifolius* Tausch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나, CP와 DP는 이 중 *R. uniflorum*만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CP에서는 *E. latifolius*와 *E. grijsii* Hance를 禹州漏蘆라는 약재로 수재하고 있다. *Rhaponticum*과 *Echinops*는 서로 다른 속이므로, CP와 같이 두 가지 약명으로 구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R. uniflorum*은 *Stemmacantha uniflora* (L.) Dittrich로 분류계통이 변경되었고¹⁶⁾, *E. setifer* L.는 *E. setifer* Iljin의 잘못이다. 또한 *E. latifolius*의 정명을 *E. davuricus* Fisch. ex Hornem.로 하는 견해도 있다¹⁷⁾.

大豆黃卷의 경우, KHP와 CP에서는 *Glycine max* Merrill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DP에서는 *Lathyrus maritimus* Bigel.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이 두 종은 같은 콩과에 속하지만 서로 속이 다르므로 향후 효능비교 등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G. max*의 정확한 표기는 *G. max* (L.) Merr.이며¹⁶⁾, *L. maritimus*는 원래 *L. maritimus* (L.) Bigelow로서 *L. japonicus* subsp. *maritimus* (L.) P.W.Ball의 이명으로 처리하거나¹⁶⁾, *L. japonicus* Willd.의 이명으로 본다¹⁷⁾.

大靑葉의 경우, KHP, CP, THP, DP 모두 *Isatis indigotica* Fort. (= *I. japonica* Miq.)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는데, KHP에서는 여기에 *Polygonum tinctorium* Ait.을 추가하고 있다. CP에서는 *Polygonum tinctorium*을 蓼大靑葉

으로 따로 수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大靑葉과 蓼大靑葉으로 구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I. indigotica*와 *I. japonica*는 모두 *I. tinctoria* L.의 이명이며^{16,17)}, *Polygonum tinctorium*은 *Persicaria tinctoria* (Aiton) H.Gross로 재정립되었다¹⁷⁾.

獨活의 경우, KP와 DP에서는 *Aralia continentalis* Kitag.를, CP와 THP에서는 *Angelica pubescens* f. *biserrata* Shan et Yuan를, 그리고 JP에서는 *Aralia cordata* Thunb.를 각각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NJP에서는 *Aralia cordata*를 和羌活로 중복수재하고, 唐獨活이라는 약명으로 *Angelica pubescens* Maximowicz와 *Angelica biserrata* Shan et Yuan을 수재하고 있다. *Aralia*는 두릅나무과, *Angelica*는 산형과로서 분류계통상 거리가 있지만, 《중약대사전》에서는 *Aralia cordata*를 九眼獨活, *Aralia yunnanensis* Franch.를 草獨活로 하는 등 중국에서도 일부 *Aralia*속 식물에 獨活이라는 약명을 붙이기도 하였다²⁶⁾. 그러나 과연 동등한 효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실험상 약효가 동등수준이라면 獨活이라는 약명 아래 4개 종을 모두 기원종으로 인정하고, 약효가 다르다면 JP-NJP와 같이 약명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Aralia continentalis*는 문헌에 따라 *Aralia cordata*와 별개인 종으로 보기도 하나^{16,17)}, *Aralia cordata*의 변종으로서 올바른 학명은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이다²¹⁾. 또한 *Angelica pubescens* f. *biserrata*는 *Angelica pubescens*와 별개인 종으로 재정립되어, 정명이 *Angelica biserrata* (R.H.Shan & C.Q.Yuan) C.Q.Yuan & R.H.Shan이다^{16,17)}.

麥門冬의 경우, KP와 DP에서는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와 *Ophiopogon japonicus* Ker-Gawler를 麥門冬의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JP와 THP에서는 *O. japonicus*만을 麥門冬으로 하고 있다. 반면 CP에서는 *O. japonicus*를 麥冬, *L. platyphylla*와 *Liriope spicata* var. *prolifera* Y.T.Ma를 山麥冬으로 구별하고 있다. *Liriope*와 *Ophiopogon*은 예로부터 麥門冬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식물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속에 속하므로, 성분조성과 효능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L. platyphylla*의 정명은 *L. muscari* (Decne.) L.H.Bailey이다^{16,21)}. 일부 문헌에서 명명자를 'Bailey'로 표기하기도 하나, 실제 원명은 Liberty Hyde Bailey로서 'L.H.Bailey'가 표준약칭이다¹⁸⁾. 또한 *L. spicata* var. *prolifera*는 *L. spicata* (Thunb.) Lour.로 통합되었다^{16,17)}.

防己의 경우, KP와 JP에서는 *Sinomenium acutum* Rehder et Wilson을, CP에서는 *Stephania tetrandra* S.Moore를 각각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CP에서는 *Sinomenium acutum*을 靑風藤으로 따로 수재하고 있다. 防己의 효능에 대한 검토를 거쳐, *Stephania tetrandra*를 防己, *Sinomenium acutum*을 靑風藤, 또는 *Sinomenium acutum*을 防己, *Stephania tetrandra*를 粉防己로 구별하여 수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Sinomenium acutum*의 정확한 표기는 *Sinomenium acutum* (Thunb.) Rehder & E.H.Wilson이다^{16,17)}.

白附子の 경우, KHP에서는 *Aconitum koreanum* Raymond을, DP에서는 *A. koreanum* (Levl.) Rapaics을,

그리고 CP에서는 *Typhonium giganteum* Engl.을 각각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관습적으로 *A. koreanum*은 關白附, *T. giganteum*은 禹白附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Aconitum*속과 *Typhonium*속은 각각 미나리아재비과와 천남성과로서, 분류학적 거리가 상당하고, *Aconitum*속 식물은 독성이 강하므로 동일한 약명 하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한편, *A. koreanum*의 정명은 *A. coreanum* (H.Lév.) Rapaics로서^{16,17,21)} 공정서상 종소명과 명명자의 표기가 잘못되었으며, *T. giganteum*은 해당 속을 세분하여 *Sauromatum giganteum* (Engl.) Cusimano & Hett.으로 보기도 한다¹⁷⁾.

浮萍의 경우, KHP와 CP에서는 *Spirodela polyrrhiza* Schleider만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나, DP에서는 여기에 *Lemna paucicostata* Hegelm.를 추가하였다. DP에서는 의약품각조의 설명 중에서 *S. polyrrhiza*를 '자평', *L. paucicostata*를 '부평'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한편, *S. polyrrhiza*의 정확한 명명자 표기는 '(L.) Schleid.'이다. 여기서 'Schleid.'는 원명인 Matthias Jacob Schleiden의 표준 약칭이며, 공정서의 'Schleider'는 철자상 오류이다. 또한 *L. paucicostata*의 정명은 *L. aequinoctialis* Welw.이다^{16,17)}.

沙參의 경우, CP와 THP에서는 南沙參이라는 약명으로 수재하고 있다. 그 기원종으로는 KHP에서는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와 *A. stricta* Miq.를, CP에서는 *A. stricta*와 *A. tetraphylla* (Thunb.) Fisch.를, NJP에서는 *A. tetraphylla*, *A. stricta*, *A. hunanensis* Nannfeldt 및 *A. triphylla*를, THP에서는 *A. stricta*와 *A. tetraphylla* 및 *A. axilliflora* Borb.를 제시하고 있으며, DP에서는 다른 속인 *Codonopsis lanceolata* (Sieb. et Zucc.) Trautv.로 하고 있다. *C. lanceolata*는 더덕으로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더덕을 沙參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현재는 잔대류를 沙參, 더덕은 羊乳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A. triphylla* var. *japonica*의 정확한 표기는 *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Hara로서 문헌에 따라서 변종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하고²³⁾, *A. tetraphylla*¹⁷⁾ 또는 *A. triphylla* (Thunb.) A.DC.로¹⁶⁾ 통합하기도 한다. 여기서 *A. tetraphylla*와 *A. triphylla*는 동일종으로서, 문헌에 따라 두 학명을 정명과 이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A. axilliflora*는 *A. stricta*로 통합되었으며^{16,17)}, *A. hunanensis*는 *A. petiolata* Pax & K.Hoffmann의 아종인 *A. petiolata* subsp. *hunanensis* (Nannfeldt) D.Y.Hong & S.Ge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⁷⁾. 그리고 *C. lanceolata*의 정확한 표기는 *C. lanceolata* (Siebold & Zucc.) Benth. & Hook.f. ex Trautv.이다¹⁶⁾.

蛇床子の 경우, CP, JP 및 DP에서는 *Cnidium monnieri* (L.) Cussion만을 기원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KHP에서는 여기에 *Torilis japonica* De Candolle를 추가하고 있다. 두 종은 같은 산형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속이 다르고, *T. japonica*는 식물국명이 '사상자'일 뿐이며, *C. monnieri* 또한 국내에 분포하는 종(별사상자)이므로, *T. japonica*를 삭제하고 *C. monnieri*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T. japonica*의 정확한 표기는 *T. japonica* (Houtt.) DC.이다^{16,17)}.

山慈姑의 경우, KHP와 CP에서는 *Cremastra appendiculata* (D.Don) Makino, *Pleione bulbocodioides* Rolfe 및 *P.*

yunnanensis Rolfe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나, DP에서는 *Tulipa edulis* Bak.로 정하고 있다. *Cremastra*속과 *Pleione*속은 모두 난초과에 속하지만, CP에서는 의약품각조에서 *C. appendiculata*를 毛慈姑, *Pleione*속의 두 종을 冰球子로 별칭하고 있다. 반면 DP의 기원품인 *T. edulis*는 백합과 식물로서 전혀 다른 계통인데, 식물국명이 '산자고' 이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상기 4종에 대한 효능비교 등 추가연구를 통해 효능 차이가 있다면 별개의 품목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난초과는 국제적인 보호식물이고 특히 冰球子는 국내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T. edulis*의 효능이 충분하다면 山慈姑의 대용품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P. bulbocodioides*의 정확한 표기는 *P. bulbocodioides* (Franch.) Rolfe이며, *P. yunnanensis*의 정확한 표기는 *P. yunnanensis* (Rolfe) Rolfe이다^{16,17}. 또한 *T. edulis*의 정확한 표기는 *T. edulis* (Miq.) Baker이며¹⁷, 최근에는 *Amana edulis* (Miq.) Honda로 재정립되었다^{16,21}.

三稜의 경우, KP, CP 및 THP에서는 *Sparganium stoloniferum* Buchanan-Hamilton만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DP에서는 여기에 *Scirpus maritimus* L.를 추가하고 있다. *Sparganium stoloniferum*은 흑삼릉과이고, *Scirpus maritimus*는 사초과이므로 분류상 거리가 멀다. 이 역시 효능비교 연구를 통해 효능상 동등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Sparganium stoloniferum*의 정확한 표기는 *Sparganium stoloniferum* (Buch.-Ham, ex Graebn.) Buch.-Ham, ex Juz.이며^{16,17}. 문헌에 따라 *Sparganium erectum* subsp. *stoloniferum* (Buch.-Ham, ex Graebn.) H.Hara으로 보기도 하고¹⁶, *Sparganium erectum* L.에 통합하기도 한다²³. 또한 *Scirpus maritimus*는 *Bolboschoenus maritimus* (L.) Palla로 재정립되었다^{16,17}.

桑寄生의 경우, CP와 THP에서는 *Taxillus chinensis* (DC.) Danser만을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KHP에서는 여기에 *Loranthus parasiticus* Merr.를 더하고 있다.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T. chinensis*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L. parasiticus*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L. parasiticus*도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타당성이 없다. 아울러 桑寄生은 기생식물로서, 원 숙주에 따라서 성분 조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 숙주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L. parasiticus*는 *Scurrula parasitica* L.로 분류군이 재정립되었다^{16,17}.

王不留行的 경우, CP와 THP에서는 *Vaccaria segetalis* (Neck.) Garcke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KHP와 DP에서는 *Melandrium firmum* Rohrbach을 정품으로 하고 있다. *V. segetalis*는 중국식물명 麥藍菜로서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종의 정명은 *V. hispanica* (Mill.) Rauschert로서^{16,17,23},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말뱅이나물'이다. 따라서 대용품 개념인 *M. firmum*은 원품인 *V. hispanica*로 환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M. firmum*은 *Silene firma* Siebold & Zucc.로 재정립되었다^{16,17,23}.

乳香의 경우, KHP에서는 *Boswellia carteri* Birdwood 및 기타 동속 근연식물, CP에서는 *B. carteri*와 *B. bhaw-dajiana* Birdw.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나, DP에서는 *B. carteri*와 그 동속식물 및 *Pistacia lentisus* L.를 기원종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B. carteri*와 *B. bhaw-dajiana*는 모두 *Boswellia sacra* Flueck. 한 종으로 통합되었으며, *Boswellia*속에 속하는 다른 식물로는 *B. ameero* Balf.f. 등 29종이 있다¹⁶. DP에서는 다른 공정서와는 달리 율리무과의 *P. lentisus*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Boswellia*속 식물에서 유래한 것은 '올리바눔(Olibanum)', *P. lentisus*에서 유래한 것은 '마스틱스(Mastix)'로 지칭한다고 언급하였다.

銀柴胡의 경우, CP에서는 *Stellaria dichotoma* var. *lanceolata* Bge.를, DP에서는 *Gypsophila oldhamiana* Miquel를 각각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KHP에서는 이 두 종을 모두 기원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디 銀柴胡의 원종은 *S. dichotoma* var. *lanceolata*이지만, 국내에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G. oldhamiana*를 대용품으로 사용해 왔으나, 속이 다른 식물이므로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S. dichotoma* var. *lanceolata*의 명명자는 Alexander Andrejewitsch von Bunge로서, 그 표준약칭은 'Bunge'이므로 'Bge.'는 잘못된 표기이다¹⁸. 또한 일부 문헌에서는 *S. dichotoma* var. *lanceolata*를 *S. dichotoma*에 통합하기도 한다²³.

紫葳의 경우 JP와 KP에서는 '紫葳'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JP와 DP에서는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을, CP에서는 *Arnebia euchroma* Johnst.와 *A. guttata* Bunge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KP에서는 이 세 종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CP에서는 비록 *Arnebia*속을 기원종으로 하지만 *L. erythrorhizon*의 중국식물명이 '紫葳'이고 *Arnebia*속의 중국식물명은 '鞞紫葳屬'이다. 한편, *A. euchroma*의 명명자는 Ivan Murray Johnston로서, 그 표준약칭은 'I.M. Johnst.'이므로 'Johnst.'는 잘못된 표기이다¹⁸. 참고로 'Johnst.'는 George Johnston의 표준약칭이다¹⁸.

前胡의 경우, KHP, CP, JP 및 THP에서는 모두 *Peucedanum praeruptorum* Dunn과 *Angelica decursiva* Franchet et Savatier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단, CP에서는 *P. praeruptorum*은 前胡, *Angelica decursiva*는 紫花前胡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여 수재하였다. 또한 DP에서는 '전호'라는 약명으로 *Anthriscus aemula* (Woron) Schisch와 *Anthriscus aemula* var. *hirtifrutus* Ohwi Kitag.를 실고 있으며(원명 '생치나물뿌리'), '바디나물뿌리'라는 약명으로 *Angelica decursiva*를 실고 있다. 前胡의 원종은 *P. praeruptorum*과 *Angelica decursiva*이며, *Anthriscus aemula*는 식물국명이 '전호'로서 한약명과의 혼란으로 인해 前胡로 잘못 쓰였던 종이다²⁷. 한편, *Angelica decursiva*는 과거에 *P. decursivum* (Miq.) Maxim.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가 정명이다^{16,17,23}. 또한 *Anthriscus aemula*와 *Anthriscus aemula* var. *hirtifrutus*는 *Anthriscus nemorosa* (M.Bieb.) Spreng.로 통합되었으며¹⁶,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호'라고 불리는 식물의 학명은 *Anthriscus sylvestris* (L.) Hoffm.이다²¹.

葶藶子の 경우, KHP와 CP에서는 *Lepidium apetalum* Willdenow과 *Descurainia sophia* Webb, ex Prantl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DP에서는 *L. apetalum*과 *Draba nemorosa* L.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세 종이 모두 십자화

과에 속하지만, 각각의 속에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효능 비교가 필요하다. CP에서는 *Descurainia sophia*를 南葶藶子, *Lepidium apetalum*를 北葶藶子로 별칭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KHP에서도 과거에는 DP와 같은 기원종을 수재하였으나, 현재는 CP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Draba nemorosa*는 한반도에서만 葶藶子の 기원종으로 인식해왔으나 이는 《東醫寶鑑》 등 과거 문헌의 향약명 기록에만 근거한 것이며, *Descurainia sophia*와 *Lepidium apetalum*도 국내에 분포하는 종이므로, 굳이 *Draba nemorosa*를 葶藶子の 대용품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한편, *Descurainia sophia*의 정확한 표기는 *Descurainia sophia* (L.) Webb ex Prantl이다^{16,17,23)}.

竹茹의 경우, CP와 THP에서는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Stapf, *Bambusa tuldoidea* Munro 및 *Sinocalamus beecheyanus* var. *pubescens* P.F.Li를, KHP에서는 *P. nigra* var. *henonis*, *P. bambusoides* Siebold et Zuccarini 및 기타 동속근연식물을, NJP에서는 *B. tuldoidea*, *P. nigra* var. *henonis* 및 *P. bambusoides*를, 그리고 DP에서는 *P. bambusoides*와 *B. tuldoidea*를 각각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3개 속 식물들이 竹茹의 기원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S. beecheyanus* var. *pubescens*는 문헌에 따라 *B. beecheyana* var. *pubescens* (P.F.Li) W.C.Lin¹⁷⁾ 또는 *B. beecheyana* Munro¹⁶⁾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竹茹의 기원종은 *Phyllostachys*속과 *Bambusa*속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전자를 淡竹茹, 후자를 靑竹茹 등으로 구별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P. nigra* var. *henonis*의 정확한 표기는 *P. nigra* var. *henonis* (Bean ex Mitford) Stapf ex Rendle이며^{16,23)}, *P. bambusoides*는 *Phyllostachys reticulata* (Rupr.) K.Koch로 재정립되었다^{16,23)}.

秦艸의 경우, KHP, CP 및 NJP에서는 *Gentiana macrophylla* Pallas, *G. straminea* Maxim., *G. crassicaulis* Duthie ex Burk, 및 *G. dahurica* Fisch.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DP에서는 *Lycotconum pseudolaeva* Nakai와 *L. longicassidatum* Nakai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Lycotconum*속은 현재 *Aconitum*속으로 통합되어, 각각 *Aconitum pseudolaeva* Nakai와 *A. longicassidatum* Nakai이 정명이고¹⁶⁾, 이들의 식물국명은 각각 '진범' 과 '흰진범'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DP와 마찬가지로 '진범' 을 秦艸로 잘못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Aconitum*속은 *Gentiana*속과는 달리 심한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두 계열을 동일한 약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天竺黃의 경우, CP와 THP에서는 *Bambusa textilis* McClure와 *Schizostachyum chinense* Rendle를, KHP에서는 이 두 종에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et Zuccarini를 더하여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DP에서는 '참대류'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DP에서 말하는 '참대류' 란 *Phyllostachys*속 식물을 가리키므로, 天竺黃은 *Bambusa*, *Schizostachyum* 및 *Phyllostachys*속의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현재까지 속/종별 天竺黃의 성분이나 효능 차이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P. bambusoides*는 竹茹 부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P. reticulata* (Rupr.) K.Koch로 통합되었다.

靑黛의 경우, KHP에서는 *Persicaria tinctoria* H.Gross와 *Baphicacanthus cusia* (Nees) Bremek.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CP에서는 여기에 *Isatis indigotica* Fort.를 추가하였고, DP에서는 여기에 다시 *Indigofera tinctoria* L.를 추가하였다. *P. tinctoria*는 여뀌과, *B. cusia*는 쥐꼬리망초과, *Isatis indigotica*는 십자화과, *Indigofera tinctoria*는 콩과로서, 각 공정서에 제시된 식물종이 모두 각기 다른 과에 속한다. 靑黛는 주성분이 인디고(C₁₆H₁₀N₂O₂)를 비롯한 색소로서 식물체를 발효가공하여 만든 제품이지만, 기원종의 과거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 성분조성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종별 성분조성과 약리활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B. cusia*는 문헌에 따라 *Strobilanthes cusia* (Nees) Kuntze로 보기도 하며^{16,23)}, *Isatis indigotica*는 *Isatis tinctoria* var. *indigotica* (Fortune) T.Y.Cheo & K.C.Kuan²³⁾ 또는 *Isatis tinctoria* L.로^{16,17)} 통합되었다.

葦澄茄의 경우, CP에서는 *Litsea cubeba* (Lour.) Pers.를, KHP에서는 *Piper cubeba* Linné 또는 *L. cubeba* Persoon c.를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Litsea*속은 녹나무과, *Piper*속은 후추과이므로 서로 계통상 거리가 있다. 본래 *cubeb*는 아랍어 카바바(قبا)에서 유래된 명칭으로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향신료로 활용되었으며 원종은 *P. cubeba*이다. 그런데 이는 중국에 분포하지 않는 종이므로, CP에서는 중국에 분포하는 *L. cubeba*를 대용품의 개념으로 수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 cubeba*의 명명자는 Christiaan Hendrik Persoon으로서 그 표준약칭은 'Pers.' 이므로 KHP의 'Persoon c.' 라는 명명자 표기는 잘못된 것이다.

寒天의 경우, KP에서는 첨가제로서 *Gelidium amansii* Lamouroux와 그 동속식물 또는 다른 홍조류(Rhodophyta)를, JP에서는 *Gelidium elegans* Kuetzing와 그 동속식물 또는 다른 홍조류를, DP에서는 *G. amansii*와 *Ahnfeltia plicata* Fries, 또는 다른 홍조류를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寒天은 agarose와 agarpectin의 혼합물로서 한약재로 사용되기보다는 식품첨가물, 미생물 배양액, 전기영동 실험의 재료 또는 약품의 점도 유지를 위한 첨가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원종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 한편, *G. amansii*의 명명자는 Jean Vincent Félix Lamouroux로서 표준약칭이 'J.V.Lamour.'이며, *G. elegans*의 명명자는 Friedrich Traugott Kützing로서 표준약칭이 'Kütz.' 이고, *A. plicata*의 명명자는 Elias Magnus Fries로서 표준약칭이 'Fr.' 이다¹⁸⁾.

香薷의 경우, DP에서는 *Elsholtzia patrinii* (Lep.) Garcke.를, KHP에서는 *E. ciliata* Hylander 또는 기타 동속식물을, CP에서는 *Mosla chinensis* Maxim. 또는 *M. chinensis* 'Jiangxiangru' 를 기원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E. ciliata*의 중국식물명은 '香薷'이며, *M. chinensis*의 중국식물명은 '石香薷' 이다. 한편, *E. ciliata*의 올바른 표기는 *E. ciliata* (Thunb.) Hyl.이며, *E. patrinii*의 올바른 표기는 *E. patrinii* (Lepech.) Garcke로서 이는 *E. ciliata*에 통합되었다^{16,17,23)}.

玄草의 경우, CP에서는 老鶴草, JP에서는 겐노쇼오코(ゲンノショウコ)라는 약명으로 수재하고 있으며, 그 기원종으로 JP에서는 *Geranium thunbergii* Siebold et Zuccarini를,

KP에서는 이것과 기타 동속근연식물을, CP에서는 *Erodium stephanianum* Willd. 또는 *G. wilfordii* Maxim. 및 *G. carolinianum* L.을, DP에서는 *G. sibiricum* L., *G. nepalense* Sweet, *G. koreanum* Komar. 또는 *G. soboliferum* Komar.을 제시하고 있다. 즉, *Geranium*속의 여러 식물과 *E. stephanianum*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CP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여 *Geranium*속 식물을 ‘短嘴老鶴草’, *E. stephanianum*을 ‘長嘴老鶴草’라고 별칭하였다. 한편, *G. thunbergii*의 학명에서 공정서상 표기는 명명자를 잘못 표기하였는데, 정확한 표기는 *G. thunbergii* Siebold ex Lindl. & Paxton이다^{17,23)}. 이를 *G. nepalense* var. *thunbergii* (Siebold ex Lindl. & Paxton) Kudo로 변종처리하는 견해도 있다²¹⁾.

黃連의 경우, CP에서는 *Coptis chinensis* Franchet와 *C. deltoidea* C.Y.Cheng et Hsiao를, KP와 JP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C. japonica* Makino까지를, THP에서는 *C. chinensis* 또는 기타 동속식물을, DP에서는 *Plagiorhegma dubium* Maxim.을 각각 기원종으로 하고 있다. DP에서만 *Coptis*속이 아닌 *P. dubium*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종은 미나리아재비과인 *Coptis*속과는 달리 매자나무과에 속한다. 하지만 黃連의 주성분인 베르베린($C_{20}H_{18}NO_4^+$)이 *P. dubium*에도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를 ‘毛黃連’이라는 이름으로 黃連의 대용품으로 사용했고, 중국식물명은 ‘鮮黃連’이다. 따라서 이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黃連의 대체자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C. japonica*의 올바른 표기는 *C. japonica* (Thunb.) Makino이며^{16,21,23)}, *C. deltoidea*의 올바른 표기는 *C. deltoidea* C.Y.Cheng & P.K.Hsiao이다^{16,17)}.

茴香油의 경우, JP와 KP에서는 첨가제로서 *Foeniculum vulgare* Miller와 *Illicium verum* Hooker fil.을 기원종으로 하고 있으며, DP에서는 ‘회향정유’라는 이름으로 *F. vulgare*만을 인정하고 있다.茴香油는 이들의 열매를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정유로서, 한약재로 쓰이기보다는 矯味矯臭를 위한 향료로 이용되는 품목이므로 향기가 유사한 *F. vulgare*와 *I. verum*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총 35건의 同名異屬種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 22품목은 같은 과에 속하는 다른 속 식물인 경우였고, 13품목은 다른 과에 속하는 경우였다. 이를 구분하면, 羌活, 銀柴胡, 三棱, 黃連 등 鄉藥 개념의 대체품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었고, 蛇床子, 王不留行 등 문헌상 기원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었다. 또한, 獨活, 漏蘆, 竹茹 등 기원종별로 약명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寒天, 回香油 등 기원종의 엄밀한 구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품목도 있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각 공정서의 학명과 명명자 표기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향후 공정서의 개정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및 북한 등 동북아 각국의 약전에 수재된 식물성 한약재 중에서 같은 약명에 기원종이 다르게 설정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품목 중에서 특히 屬이 달라 사용

상 주의를 요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원종 비교 및 학명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5개국 약전에 수재된 식물성 한약재는 모두 753품목이었으며, 이 중 320품목은 단 1개국 약전에만 수재되었으며, 237품목은 2개국 이상의 약전에 수재되어 있지만 동일한 기원종이 설정되어 있었다.
2. 같은 약명에 다른 속의 기원종이 규정된 同名異屬種 품목은 총 35품목이었다. 이 중 22품목은 같은 과에 속하는 품목이었으나, 13품목은 과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
3. 同名異屬種은 효능 비교를 거쳐 효능이 동등하지 않을 경우 기원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효능이 유사할 경우는 鄉藥 또는 희귀식물 대체품으로 응용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4. 한편, 현행 식물명명규약에 비추어 공정서의 학명 표기, 특히 명명자 표기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공정서 개정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본초 활용기반 구축 사업 - 혼오용 다빈도 약재의 기원정립 중심으로’ (과제코드 : K13020)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The Korean Pharmacopoeia 10th edition. The KFDA Notification No. 2012-129. 2012 Dec 27th.
2.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4th edition. The KFDA Notification No. 2012-135. 2012 Dec 28th.
3. Chinese Pharmacopoeia Commission,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edition. Volume I. Beijing : China Medico Pharmaceutical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0.
4. Chinese Pharmacopoeia Commission, Pharmacopoei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edition, supplement I. Beijing : China Medico Pharmaceutical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2.
5.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he Japanese Pharmacopoeia 16th edition.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ial Notification No. 65. 2011 Mar 24th.
6.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he Japanese Pharmacopoeia 16th edition, supplement I.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erial Notification No. 519. 2012 Sep 27th.
7.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The

- Japanese Standards for Non-Pharmacopoeial Crude Drugs 2012, 2012 Oct 30th.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Traditional Pharmacopoeia of Taiw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0930000936, 2005 Mar 9th.
 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armacopoeia Commission. The Pharmacopoeia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th edition, Pyeongyang : Medical Science Publishing House, 2011.
 10. Park SH, Youm JR, Chang IM. Systematic Botanical Survey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Listed in the Official Drug Compendia(Pharmacopoeia and Natural Drug Standards) of Korea, China and Japan, Kor J Pharmacogn, 1991 ; 22(2) : 112-23.
 11. Seo BI. A Study on Origin and Name of Herbs in South and North Korea(IV). J Jeahan Ori Med Academy, 2000 ; 5(1) : 1-21.
 12. Seo BI. A Study on Origins of Herbal Oriental Medicines in Several Nations Pharmacopoeias and Standard Collections for Editing of Korea Herbs Pharmacopoeia(VIII). J East West Med, 2002 ; 27(4) : 47-62.
 13. Choi MS, Kang CS, Kim HS, Kim EJ, Hong CH, Ko YS, Kim SH, Jang SJ.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Pharmacopoeia with North Korean Pharmacopoeia, J Kor Pharm Sci, 2004 ; 34(5) : 427-33.
 14. Kim IR. A Study on the Medicinal Using Part and Description of *Linderae Radix* in the Korea Pharmacopoeia Ninth Edition, Kor J Herbology, 2008 ; 23(3) : 135-40.
 15. Kim IR. A Study on the Herbal Name and Four Qi(四性) of Genus *Curcuma* in the Korea Pharmacopoeia Ninth Edition, Kor J Herbology, 2009 ; 24(3) : 21-8.
 16. Royal Botanic Gardens, Kew, Missouri Botanical Garden. The Plant List, Version 1. Retrieved Aug. 1, 2013, from <http://www.theplantlist.org/tpl/search?q=>.
 17. Missouri Botanical Garden & Harvard University Herbaria, eFloras. Retrieved Aug. 1, 2013, from http://efloras.org/flora_page.aspx?flora_id=2.
 18. Plant Names Project. The International Plant Names Index Author Query. Retrieved Aug. 1, 2013, from <http://www.ipni.org/ipni/authorsearchpage.do>.
 19.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Melbourne Code). Koenigstein : Koeltz Scientific Books, 2012.
 20. Doh EJ, Lee GS. Reconsideration about Nomenclature of Herbs Listed in the Korean Pharmacopoeia, Kor J Herbology, 2013 ; 28(3) : 61-8.
 21. Chang CS. Herbacious Plants Nomenclature Service. Retrieved Aug. 1, 2013, from <http://plaza.snu.ac.kr/~quercus1/Herblist.htm>.
 22. Choi GY, Choo BK, Moon BC, Lee HW, Lee AY, Kim HK. Study on the Origin of the Haedae by Literature Review on the Classics of Oriental Medicine. Kor J Ori Med, 2007 ; 13(3) : 12.
 23. Yonekura K, Kajita T. YList, BG Plants Japanes name - Scientific name database. Retrieved Aug. 1, 2013, from <http://bean.bio.chiba-u.jp/bgplants>.
 24. Kang HS, Shin MK, Song HJ.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Composition of Essential Oils and Effects on the Neurodegenerative Disorders of *Herba Agastachis* and *Herba Pogostemonis*, Kor J Herbology, 1996 ; 11(2) : 183-205.
 25. Kim IR.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Source of *Gwackhyang*, Kor J Herbology, 2006 ; 21(4) : 43-9.
 26. Zhong N, Zhao G, Dai S, Chen R. *Zhong yao da ci dian*, 2nd ed, Shanghai : Shanghai ke xue ji shu chu ban she, 2006.
 27. Lee GS, Doh EJ, Jeong SI, Kim HJ, Lee JC, Oh SE, Ju YS, Cho SI. Identification Keys of *Jeonho(Qianhu)* and *Asam(Eshen)*, Kor J Herbology, 2011 ; 26(3) : 57-63.